

金昌協의 『五子粹言』으로 보는 隋儒 王通

노 관 범*

-
- | | |
|------------------|------------------|
| 1. 머리말 | 4. 『五子粹言』의 王通 이해 |
| 2. 金昌協의 『五子粹言』 | 5. 맺음말 |
| 3. 王通에 대한 인식의 변천 | |
-

초록: 17세기 조선 주자학자 김창협은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문제적인 인물이다. 김창협은 조선후기 율곡학파에 속하는 주자학자인데 율곡학파의 호락 분기에서 낙학의 중심 학자로 활동하였다. 조선후기 주자학의 일부이기도 한 낙학은, 조선후기 실학의 일부로서 북학의 사상적 원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주자학에서 조선후기 실학으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낙학을 개진한 학자들의 자유롭고 절충적인 학문 태도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낙학과 북학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낙학 역시 주자학의 일부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낙학의 개창자 김창협은 송시열을 도와 주회 텍스트의 정밀한 독해를 추구하는 등 정통 주자학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글은 김창협이 편찬한 『오자수언』을 통해 김창협이 주자학을 탐구하였다. 『오자수언』은 순경, 동중서, 양옹, 왕통, 한유 등 다섯 유학자의 순수한 언설을 선별한 문장 선집이다. 이들은 선진 공맹 유학 이후 송대 신유학 이전 시기의 중국 유학사 계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공맹 유학과 송대 신유학 사이의 중국 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김창협이 추구했던 포괄적인 주자학, 곧 결과로서의 주회 텍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주회 텍스트를 체득하고자 했던 학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수나라 유학자 왕통은 양한을 역사 모델로 하는 왕도정치를 추구했고 이로 인해 '양한이 삼대가 되기 부족한 줄 알지 못했다'는 주회의 비평을 들었던 인물이다. 김창협이 『오자수언』으로 재현되는 왕통은 원칙적으로 주회의 관점에 따라 정화된 왕통이었으나 양한에 대한 왕통의 역사적 존중은 부분적으로 보존되었다. 주자학자 김창협이 왕통 선집 작업은 조선후기 낙학의 이채로운 학문적 조류의 하나였다.

핵심어 : 김창협, 어유봉, 오자수언, 왕통, 주자학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1. 머리말

조선후기 사상사의 흐름에서 金昌協(農巖, 1651-1708)의 역사적 위치는 중요하다. 그는 조선후기 율곡학파의 중심인물 송시열의 주요 문인이자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기에서 낙학의 산실이 되는 중심인물이었는데, 김창협과 낙학은 조선후기 북학사상의 중심인물인 박지원·홍대용의 학문적 연원이자 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점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¹⁾ 김창협의 실제적인 고문 작법 역시 박지원의 혁신적인 고문정신의 단초로 중시되었다.²⁾ 김창협의 학풍은 무엇보다 절충과 자득을 중시했고 이로 인해 주자학 전통의 祖述보다는 역동적인 創新을 초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³⁾ 또한 송시열의 노론 의리와 주자학 연구에 동조하면서도 서울·경기의 상수학과 사공학의 영향을 받아 낙학의 새로운 학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⁴⁾ 김창협의 아우 김창흡도 자득과 박학, 장자의 遊와 소용의 觀物, 創新의 시학이 학문적 특색으로 손꼽힌다.⁵⁾ 요컨대 김창협은 조선후기 율곡학파가 호학과 낙학으로 분화하고 다시 낙학에서 북학이 생성되는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주목되어 왔다.

김창협의 문인 魚有鳳(杞園, 1672-1744)에 대해서도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후기 호락 논변 성립사의 시각에서 김창협·김창흡 문하 어유봉과 李顯益 사이의 심성론 논쟁이 낙학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국면이었음이 제시되었고,⁶⁾ 조선후기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기와 관련하여 어유봉이 편집한 김창협의 『朱子大全筭疑問目』과 權尙夏가 완성한 송시열의 『朱子大全筭疑』를 비교 검토해서 호락의

1) 유봉학, 1995,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79-100면.

2) 정민, 1989,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37-47면.

3) 이경구, 2007,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203-214면.

4)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167-191면.

5) 이승수, 1998, 『삼연 김창흡 연구』, 이화문화출판사, 429-481면.

6) 문석운, 2006, 『호락논쟁 : 형성과 전개』, 동과서, 207-224면.

상호 경쟁과 대립을 투시한 연구도 제출되었다.⁷⁾ 사실 『주자대전』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서로서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가 출현하여 이후 그 부단한 전통이 李恒老의 『朱子大全筭疑輯補』에까지 이르러 종합적인 결실을 보았음을 돌아볼 때,⁸⁾ 어유봉이 편찬한 김창협 의 『주자대전차의문목』은 주자학자 김창협 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에 부족함이 없다. 김창협이 주자학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자학의 본지인 性善說의 절대 가치를 추구하여 시세나 현실에 경사됨이 없이 사회 정의의 기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김창협 의 정치사상이었다는 논의⁹⁾가 자연스런 면이 있다. 김창협 의 『논어』 연구가 다양한 주희의 저술을 비교 검토하여 주희 주석의 경학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다는 논의¹⁰⁾도 주자학자 김창협 의 면모를 일깨워준다.

어유봉은 김창협 사후 문집을 편찬하고 연보를 완성한 김창협 의 핵심 문인이었다. 그는 김창협 의 학문적 성과를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차례로 『論語詳說』(1719), 『주자대전차의문목』(1729), 『五子粹言』(1737)을 편찬했는데, 이 중에서 『오자수언』은 荀卿, 董仲舒, 揚雄, 王通, 韓愈 등 공맹 이후 정주 이전의 다섯 유학자의 글을 필삭한 이색적인 문헌이다. 이들 다섯 유학자는 범주적으로는 주희가 칭한 ‘戰國漢唐諸子’에 속하는 인물들인데 공맹 유학과 송대 도학 사이에 놓여 있는 이들의 언설을 굳이 ‘수언’으로 만들고자 하는 편찬자 김창협 의 학문적 관심이 흥미롭다. 김창협이 주자학자로서 공맹 유학과 송대 도학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한당제자’에까지 관심을 확대하여 진행한 ‘수언’ 작업은 결코 ‘제자학’ 연구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늘날 ‘선진 제자’ 중심의 근대 제자학¹¹⁾과 상통

7) 강문식, 2013, 『金昌協의 朱子書 연구와 『朱子大全筭疑問目』』, 『한국사연구』 160.
 8) 『주자대전차의』에서 『주자대전차의집보』에 이르는 주자학 주석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조된다. 이규필, 2011, 『『주자대전』 주석서와 『주자대전차의문목표보』』, 『대동한문학』 34; 이향준, 2012,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울곡사상연구』 25; 이영호, 2014, 『조선의 주자문집 주석서와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88; 송혁기, 2015, 『조선의 주자학과 『주자대전차의집보』』, 『동아한학연구』 10.
 9) 김호, 2008, 『농암 김창협 사상의 역사적 이해』, 『기전문화연구』 34.
 10) 류준필 · 이영호, 2008, 『농암 김창협 의 논어학과 그 경학사적 위상』, 『한문학보』 19.
 11) 김현주, 2015, 『중국 근대 제자학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4.

하는 학술적 노력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학문 전통에서 유례가 드문 주요 '전국한당제자' 선집 작업은 김창협이 학문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생각된다. 이에 본 글은 김창협의 문제적인 편찬물로 『오자수언』에 주목하되 그 중에서 수나라 유학자 王通의 글이 어떤 방식으로 필삭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오자수언』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시 왕통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살펴본 다음 『오자수언』에서 재현되는 왕통의 언설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창협의 학문과 학풍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는 데 보탬이 있기를 희망한다.

2. 金昌協의 『五子粹言』

『오자수언』은 공맹 이후 한당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다섯 명의 저명한 유학자, 즉 荀卿·董仲舒·揚雄·王通·韓愈의 글을 조선 유학자 김창협이 필삭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의 규장각 소장본(奎15487)은 전체 5권 2책에 張數는 제1책 91장 제2책 75장이다. 책의 구성을 각권별로 살펴보면, 각각 제1권은 楚의 荀卿, 제2권은 漢의 董仲舒, 제3권은 漢의 揚雄, 제4권은 隋의 王通, 그리고, 제5권은 唐의 韓愈, 이렇게 권별로 해당 유학자의 本傳과 粹言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朱子語類五子總論>과 <朱子王氏續經說>을 배치해 이들 '오자'¹²⁾에 대한 朱熹의 논평을 첨가하였다. 제1권부터 제5권까지의 본문은 김창협이 직접 필삭한 것이지만 부록은 어

12) 중국 유학사에서 '五子'는 통상적으로 송대 程朱學의 계보를 구성하는 周敦頤·程顥·程頤·張載·朱熹를 가리킨다. 『五子近思錄』, 『五子手圈』 등의 '오자'가 그것이다. 김창협이 편찬한 『오자수언』과 같이 荀卿·董仲舒·揚雄·王通·韓愈를 '오자'라고 부르는 사례는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三字經』은 '五子'는 荀·揚, 文中子, 老·莊이라고 했는데, 순경·양옹·왕통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朱熹와 呂祖謙이 편찬한 『近思錄』의 맨 마지막 편에서 정리한 유가 성현의 역사에는 공맹 이후 정주 이전 유학자로 순경, 양옹, 동중서, 왕통, 諸葛亮, 한유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오자수언』에서 취한 '오자'의 범위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유봉이 완성하였다.¹³⁾

김창협은 44세(1693년)에 이 책을 편찬했다.¹⁴⁾ 그는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자 自廢를 결행하고 鷹巖에서 살며 매일 『論語』를 읽고 『朱子大全筭疑』 작업에 매진했다.¹⁵⁾ 응암 동쪽에 農巖書室을 짓고 스스로 농암이라 자호했다.¹⁶⁾ 『오자수언』은 말하자면 그가 농암이 되어 새롭게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던 시기에 편찬된 책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미완성의 책으로 생각해 책의 서문을 짓지 않았고 결국 그의 문인 魚有鳳이 유지를 받들어 주희의 오자 논평까지 포함된 형태로 책을 완성했다.

어유봉의 서문(1737년)은 이 책의 취지를 잘 전달한다. ‘오자’의 역사적 위상은 무엇인가? 이들은 공맹 이후 百家가 유행하고 불교가 전파되어 유학이 쇠퇴한 혼란스런 시기에 공자의 가르침과 선왕의 법을 받들었다. 캄캄한 長夜의 시기에 외롭게 유학을 창도해서 도를 이어온 이들의 업적은 ‘祖述仲尼, 羽翼六經’이라 평가할 만하다. ‘수언’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韓愈의 『讀荀』에는 ‘孟子는 순하다 순한 학자이나 荀·揚은 대체로 순하고 조금 흠이 있다[孟氏醇乎醇者也, 荀與揚大醇而小疵]’는 평가가 있고 공자의 詩·書·春秋 필삭을 본받아 순자를 필삭해 성현의 문헌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오자’의 역사적 위상은 주희가 인정했고 ‘수언’의 필요성은 한유가 제기했는데 이를 본받아 김창협이 편찬한 책이 『오자수언』이다.¹⁷⁾

어유봉의 서문은 『오자수언』의 학술적 가치를 말하면서 주희와 한유를 함께 거론했다. 오자의 학문이 순수하지 못함이 있으나 공맹 이후 정주 이전 오자의 역사적 위치를 주희가 인정했음을 보이기 위해 부록으로 주희의 ‘전국한당제자’와 ‘왕

13) 魚有鳳, 『杞園年譜』 권2 丁巳年 12월 增補五子粹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農岩先生嘗取荀卿董仲舒揚雄王通韓愈之書, 揀其言之精粹合於道者, 爲五子粹言. 又欲取朱子書中論評五子之言, 錄于卷末而未及就, 先生爲之攷據採擇, 遵遺旨補錄, 藏于家.”

14) 金昌協, 『農巖集』 附錄 『年譜』 癸酉條.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 金昌協, 『農巖集』 附錄 『年譜』 己巳條.

16) 金昌協, 『農巖集』 附錄 『年譜』 壬申條.

17) 金昌協, 『農巖別集』 권4 附錄 『諸家撰述』; 魚有鳳, 『杞園集』 권19 『五子粹言序』.

씨속경설'을 포함시켰다. 본래의 '오자'는 주희의 비평처럼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한유의 제안에 따라 순수하게 정련된 '오자수언'은 주희의 비평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 기대되었다. 어유봉에 따르면 김창협은 『오자수언』에 상당히 흡족해 했는데, 『오자수언』 본문이 완성되자 '읽어보니 아주 좋다'고 말했고 '文中子は 논어와 비슷하고 韓子は 맹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¹⁸⁾ 『오자수언』으로 전달되는 수당 유학자 왕통·한유의 글이 논어·맹자와 비슷하다는 김창협의 감상은 의미심장하다. 한유의 『독순』에서 이미 순경과 양웅의 글은 '수언'의 과정을 거치면 맹자와 같은 성현의 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실제로 왕통과 한유의 글이 '오자수언'의 편찬과정을 거쳐 논어·맹자 같은 글이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자수언』 본문에 들어간다. 권1은 荀卿이다. 卷頭に 있는 「荀卿本傳」은 순경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¹⁹⁾ 「순경본전」은 『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의 荀卿條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음이 확인된다.²⁰⁾ 이어서 「荀子」라는 항목으로 총 107條의 '수언'을 열거하고 있다.

권2는 董仲舒이다. 卷頭に 있는 「董仲舒本傳」은 동중서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²¹⁾ 「董仲舒本傳」은 『漢書』 卷56 「董仲舒傳」 가운데 漢武帝의 制와 이에 대한

18) 金昌協, 『農巖別集』 권3 「語錄」 〈魚有鳳錄〉 17면.

19) 「순경본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경은 趙人이다. 50세에 비로소 齊에 游學하였는데 齊襄王時에 老師가 되었고 이후 3번이나 祭酒가 되는 영예를 입었다. 齊人에게 참소를 받아 楚로 가니 楚의 春申君이 蘭陵令으로 삼았으나 춘신군이 죽은 후 버림받아 마침내 蘭陵에 집을 짓고 저술에 힘썼다. 한편 「史記索隱」에 의하면 荀卿의 본래 이름은 況이고, 卿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여 부른 것이다.

20) 『五子粹言』 「荀卿本傳」은 내용은 물론 표현까지 『史記』 「孟子荀卿列傳」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나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史記』 「孟子荀卿列傳」. “荀卿, 趙人. 年五十始來游於齊. 騶衍之術, 迂大而閎辯. 奭也文具難施., 淳于髡久與處, 時有得善言. 故齊人頌曰: ‘談天衍, 雕龍奭, 炙轂過髡.’ 田駢之屬皆已死. 齊襄王時, … (下略)”

— 『五子粹言』 「荀卿本傳」. “荀卿, 趙人. 年五十始來游於齊. 淳于髡久與處, 時有得善言. 田駢之屬皆已死. 齊襄王時, … (下略)”

21) 「동중서본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董仲舒는 廣川人이다. 어려서 春秋를 공부하여 景帝

董仲舒의 對策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거의 그대로 전재했음이 확인된다.²²⁾ 이어서 「董子」라는 항목으로 총 4條의 ‘수언’을 열거하고 있다.

권3은 揚雄이다. 卷頭에 있는 「揚雄本傳」은 揚雄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²³⁾ 「양웅본전」은 『漢書』 卷87 「揚雄傳」을 옮겼는데, 「揚雄本傳」의 전반부는 『漢書』 「揚雄傳」상의 처음 두 문단을 옮겼고 후반부는 『한서』 「양웅전」下的 史贊 부분을 옮긴 것이다. 이어서 「揚子」라는 이름으로 총 115條의 ‘수언’을 열거하고 있다.

권4는 王通이다. 卷頭에 있는 「王通本傳」은 王通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²⁴⁾ 「왕통본전」은 『中說』에 수록된 「文中子世家」와 일치한다.²⁵⁾ 이어서 「왕자」라는 이름

때에 博士가 되었고, 武帝가 즉위하여 賢良文學의 선비를 발탁할 때에 天人三策을 올려 江都相이 되어 易王을 보필하였다. 대개 武帝가 처음 등극하고 나서 儒家를 높였지만, 동중서의 대책에 미처서야 孔子를 推明하고 百家를 抑黜하였다. 저서로는 『春秋』의 득실을 설명한 『聞舉』·『玉杯』·『蕃露』·『清明』·『竹林』 등이 있다.

22) 동중서의 전기는 『漢書』와 『史記』에 다 같이 실려 있다. 그러나 『五子粹言』이 『漢書』를 바탕으로 삼았음은 먼저 다음과 같은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史記』 「儒林列傳」, “董仲舒, 廣川人也, 以治春秋, 孝景時爲博士.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蓋三年董仲舒不觀於舍園, 其精如此. … (下略)”

— 『漢書』 「董仲舒傳」, “董仲舒, 廣川人也, 少治春秋, 孝景時爲博士.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蓋三年不窺園, 其精如此. … (下略)”

— 『五子粹言』 「董仲舒本傳」, “董仲舒, 廣川人也, 少治春秋, 孝景時爲博士.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蓋三年不窺園, 其精如此. … (下略)”

23) 「양웅본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웅은 자는 子雲이고 蜀郡 成都人이다. 40여세에 京師에 游하였을 때에 大司馬 車騎將軍 王音의 친거로 입사하였다. 成帝·哀帝·平帝 때에 王莽과 董賢이三公이 되어 국사를 진행하였으나 양웅은 그들의 권세에 초연하였다. 왕망은 즉위한 후에 劉歆·甄豐 부자를 제거하였는데 양웅 역시 혐의를 받아 治獄使者가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天祿閣 위에서 책을 교정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 누각 위에서 투신하여 죽었다. 그의 저술로는 『太玄』·『法言』·『虞箴』·『反離騷』 등이 있다.

24) 「왕통본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통은 자는 仲淹으로 銅川府에서 태어나 冠禮를 치른 다음 개연히 長生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품고 長安에 가서 隋文帝를 알현하고 太平十二策을 상주하여 尊王道·推霸略의 뜻을 펼쳤으나 공경들의 반대로 등용되지 못하였다. 그 후 향리에 돌아와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續六經을 저술하였다. 그의 학문과 명망이 널리 미쳐 房玄齡·魏徵 등 많은 문인이 찾아왔다. 34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25) 왕통은 수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隋書』에 그 열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으로 총127조의 수언을 열거하고 있다.²⁶⁾ 이 글에서 검토하려는 왕통에 대해서는 宋明理學의 효시라는 평가, ‘窮理盡性’의 교육사상과 ‘왕도정치’의 정치사상이 언급되고 있다.²⁷⁾

권5는 韓愈이다. 卷頭에 있는 「韓愈本傳」은 한유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²⁸⁾ 「한유본전」은 『新唐書』 권176 「韓愈列傳」 가운데 한유의 저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의 행적 부분을 거의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²⁹⁾ 이어서 「韓子」라는 이름으로 총

「왕통본전」의 전거를 구할 수 없다. 隋唐 유학을 연구한 程方平은 『全唐文』에 수록된 杜淹의 「文中子世家」에 의지해 왕통의 생애를 재구성했는데(程方平, 1991, 『隋唐五代的儒學』 雲南教育出版社 42-44면), 『오자수언』의 「왕통본전」은 이보다는 왕통의 ‘수언’의 직접적인 채록 대상이었던 『중설』에 실린 「문중자세가」를 활용했다고 생각된다.

- 26) ‘수언’은 왕통과 문인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 전해지는 『中說』에서 왕통의 핵심적인 언설을 초출한 것이다. 왕통의 주요 저술로 알려진 「태평십이책」과 속육경이 실전된 상황에서 『중설』은 왕통의 유학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楊永安, 1992, 『王通研究』, 香港大學中文系出版 18-52면, 속육경 중에서 續詩, 續書, 禮論, 樂論, 贊易은 실전되었고 元經은 진본이 사라지고 위작이 현전한다).
- 27) 왕통은 人心-道心の 분별과 ‘以性制情’을 말했고 ‘窮理盡性’을 교육사상의 기본 관점으로 채택했는데(王炳照·閻國華 主編, 1994, 『中國教育思想通史』 제2권, 湖南教育出版社 431-447면), 이 점에 주목해 송명 理學의 효시라 평가되기도 한다(程方平, 앞의 책 42-67면). 또한 그는 王道를 일으키고 禮樂을 바로잡는 것을 최고의 정치 이상으로 삼았는데(劉澤華 主編, 1996, 『中國政治思想史』 隋唐宋元明清卷, 浙江人民出版社 151-162면), 왕도 정치의 이상적인 모범으로 삼대의 회복을 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兩漢의 왕정을 중시했고 이 때문에 주희에게 ‘양한이 삼대가 되기 부족한 줄 알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朱熹, 『朱子大全』 권67 「王氏續經說」).
- 28) 「한유본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유는 자는 退之이고 鄧州 南陽人이다. 3세에 고아가 되어 형수가 길렀다. 독서를 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날마다 數千百言을 습작하고 장성하여 六經과 百家學에 능통하였다. 宣武節度使 董晉이 그를 觀察推官으로 임명한 후로 그는 내외관직을 역임하면서 淮西 등 변방 제진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여러 차례 공을 세워 관직이 吏部侍郎까지 이르렀다. 57세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항상 漢의 司馬相如·司馬遷·劉向·揚雄 이후에 문장가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문장의 본원을 깊이 탐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 29) 『五子粹言』 「韓愈本傳」과 『新唐書』 「韓愈列傳」 사이에 다음과 같은 표기상의 차이가 산견되기도 한다.
- 『新唐書』 「韓愈列傳」. “初, 憲宗將平蔡, 命御使中丞裴度使諸軍按視. 及還, 且言賊可滅, 與宰相議不合. … (中略) 愈請乘遽先入汴, 說韓弘使叶力. … (中略) 王公士人奔走膜頌,

28조의 수언을 열거했다.

김창협이 ‘수언’ 필삭은 『近思錄』 권14에 수록된 ‘오자’ 비평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었다. 『근사록』은 순경과 양옹이 인성론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다는 관점이었다.³⁰⁾ 그러나 김창협은 이들을 학문적으로 논했다. 순·양을 직접 읽고 이들의 인성론, 곧 性惡論과 性善惡混論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³¹⁾ 순경의 성악론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³²⁾ 동시에 文의 관점에서 송대 曾鞏과 蘇軾의 문을 각각 순자와 맹자에 비유하고,³³⁾ 양옹의 『法言』이 道를 얻지 못하고 文에만 뜻을 두었기 때문에 표절과 모의에 빠져 諸子の 문에서 하등이라고 비평하였다.³⁴⁾ 『근사록』은 한유가 맹자 이후 식견이 큰 ‘豪傑之士’임을 인정하면서도 한유의 『原道』에 문제점이 있고 한유가 修德 없이 學文에 힘썼던 인물이라 비평했다.³⁵⁾ 김창협은 한유의 『原道』가 誠意正心에서 그치고 格物致知를 언급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程頤와 朱熹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도리어 작품의 맥락적 이해를 제안했다.³⁶⁾ 『근사록』에서 지적한 한유의 『원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원도』를 대체적으로 보면 합당하기 때문에 ‘수언’에서 이를

至爲夷法灼體膚. … (下略)”

— 『五子粹言』 『韓愈本傳』, “初, 憲宗將平蔡, 命御使中丞裴度使諸軍按視. 及還, 具言賊可滅, 與宰相議不合. … (中略) 愈請乘遽先入汴, 說韓弘使協力. … (中略) 王公士庶奔走膜頰, 至爲夷法灼體膚. … (下略)”

- 30) 『近思錄』 권14 “苟卿才高其過多, 揚雄才短其過少”; “荀子極偏駁, 只一句性惡, 大本已失, 揚子雖少過, 然已自不識性, 更說甚道.”
- 31) 金昌協, 『農巖集』 권14 『答閔彥暉』 29-32면.
- 32) 金昌協, 『農巖集』 권25 『性惡論辨』.
- 33)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42면.
- 34) 金昌協, 『農巖集』 권25 『讀法言』.
- 35) 『近思錄』 권14 “韓愈亦近世豪傑之士, 如原道中言語雖有病”; “學本是修德, 有德然後有言, 退之却倒學了, 因學文日求所未至, 遂有所得.” 『近思錄集解』는 『원도』의 문제점으로 ‘博愛’를 곧 ‘仁’이라 함에 따라 인의 體를 다하지 않고 用만 밝힌 점, ‘道德’을 ‘虛位’라 함으로써 名을 논변하고 實을 연구하지 않은 점, ‘正心誠意’의 학을 말하고 ‘格物致知’의 공을 빠뜨린 점을 지적했다.
- 36) 金昌協, 『農巖集』 권32 『雜識』 〈內篇二〉 20면.

제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³⁷⁾ 어유봉도 순경, 양옹, 한유의 인성론을 비교하고 3인 모두 氣를 말하는 데서 그쳤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3인 중에서는 한유의 인성론이 가장 近理하다고 평가했고,³⁸⁾ 한유가 ‘扶正斥邪’의 신념에 변함이 없었던 ‘大賢’이라 평가했다.³⁹⁾

끝으로 부록이다. 『朱子語類五子總論』은 『朱子語類』 권137 『戰國漢唐諸子』에서 ‘오자’와 관련된 주희의 언설을 발췌한 것이다. ‘오자’가 범주적으로 ‘전국한당제자’⁴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朱子王氏續經說』이 있다. 『朱子大全』 권67 『王氏續經說』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⁴¹⁾

여기서 주희의 ‘오자’ 비평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오자’ 중에서 왕통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전국한당제자』에서 그는 순경·양옹·왕통·한유 4인의 학문을 비교해 각각 ‘流於申韓’·‘歸於黃老’, 그리고 ‘有用而無體’·‘有體而無用’으로 비평했는데⁴²⁾ 상대적으로 왕통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순경과 한유에게서 왕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또 동중서·양옹·왕통·한유

37) 金昌協, 『農巖別集』 권3 附錄 『語錄』, (魚有鳳) “先生抄五子粹言. 時, 有鳳請曰, 韓子原道首句, 先儒以爲病, 而今錄之何如. 先生曰, 程子固論其指情爲性之失, 而以愛論仁, 大體則得矣, 何可去也.”

38) 魚有鳳, 『杞園集』 권22 『荀楊韓論性辨』.

39) 魚有鳳, 『杞園集』 권19 『擬送韓退之貶潮州序』.

40) ‘戰國漢唐諸子’라는 명칭은 ‘先秦諸子’에 비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宋代에 이르면 ‘諸子’라는 개념은 戰國時代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漢唐 사상가들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어의를 획득하게 되었음이 알려져 있다. 佐藤仁, 1974, 『朱子と諸子』, 『朱子學入門』, 明德出版社, 423-444면.

41) 『王氏續經說』에는 끝부분에 或者가 王通을 孟子的 등급으로 볼 수 없다면 荀卿·揚雄·韓愈의 3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朱熹가 이에 답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3인과 비교한 논평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부록으로 기록한 ‘五子總論’의 편집취지에 부합하여 함께 수록된 듯하다.

42) 한유의 ‘有體而無用’이란 『原道』편의 저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의 大原만을 깨달았을 뿐 구체적인 작용처는 공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文士의 浮華放浪의 습관과 時俗의 富貴利達의 추구를 면하지 못하였다는 뜻이고, 왕통의 ‘無體而有用’이란 그가 世務變故와 人情物態에 환하였으나 도의 본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周孔의 이념 하에 兩漢을 모델로 한 王道政治를 자임하였다는 뜻이다.

4인의 우열을 비교하면서 동중서는 ‘好人’이나 양웅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 한 유는 시나 짓고 술이나 마시며 벼슬이나 구한 인물이지만 왕통은 천하를 위해 사업을 하려 했던 인물로 대비시켰다. 동중서와 왕통을 비교하면서 동중서의 ‘本領’과 왕통의 ‘治體’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왕통이 당시 이윤과 주공의 사업을 하려 했으니 뜻이 낮지 않은데 二帝三王을 배우지 않고 兩漢을 배워서 도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 주희의 핵심적인 왕통 인식이었다.⁴³⁾ 『왕씨속경설』에서도 그는 왕통이 삼대의 도에 뜻을 두었고 『대학』의 ‘명덕신민’의 학을 지향했음을 인정했으며 다만 수나라 문제에게 대평책을 헌책한 가벼움과 속경을 편찬한 참람됨을 비판했다. 순경, 양웅, 한유와 비교하면 왕통의 ‘近正’과 ‘懇惻’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왕통에 대해서만 도학을 성취하지 못했음을 애석하게 여긴다고 말했다.⁴⁴⁾ 이로 보아 주희는 ‘오자’ 중에서 왕통을 가장 아낀 듯한데 실제로 조선의 吳熙常(老州, 1763-1833)은 주희가 ‘한당제자’ 중에서 왕통을 가장 칭찬했다고 보았다.⁴⁵⁾ 본 글이 김창협의 『오자수언』 중에서 수나라 유학자 왕통의 ‘수언’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희의 이러한 왕통관에 기인한다.

3. 王通에 대한 인식의 변천

왕통은 수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였지만 당세에는 지명도가 높지 못하였다. 중국

43) 『朱子語類』 권137 『戰國漢唐諸子』, “文中子他當時要爲伊周事業, 見道不行, 急急地要做孔子. 他要學伊周, 其志甚不卑, 但不能勝其好高自大欲速之心, 反有所累, 二帝三王卻不去學, 卻要學兩漢, 此是他亂道處, 亦要作一篇文字說這意思.”

44) 『朱子大全』 권67 『王氏續經說』, “荀卿之學雜於申商, 子雲之學本於黃老, 而其著書之意, 蓋亦姑託空文以自見耳, 非如仲淹之學頗近於正, 而粗有可用之實也. 至於退之原道諸篇, 則於道之大原若有非苟揚仲淹之所及者, 然考其乎生意鄉之所在, 終不免於文士浮華放浪之習, 時俗富貴利達之求, 而其覽觀古今之變, 將以措諸事業者, 恐亦未若仲淹之致懇惻而有條理也, 是以予於仲淹獨深惜之, 而有所不暇於三子.”

45) 吳熙常, 『老洲集』 권26 『雜識 四』 31면. “朱子於漢唐諸子, 最稱王仲淹.”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지식인들이 왕통에 대한 뚜렷한 논평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晚唐부터였다. 『復性書』를 저술하여 송대 신유학의 기원을 열었던 李翱은 왕통의 문장에 대하여 “이치가 왕왕 있으나 사장이 뛰어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왕씨의 『중설』이 그것이다.”라고 폄평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논평이다.⁴⁶⁾ 晚唐 유학의 대표자로 꼽히는 皮日休는 중국 유학사에서 왕통이 위로 孟子, 荀子와 접하고 아래로 韓愈를 열어준 인물이라 평가함으로써 처음으로 왕통에게 중국 유학 전통의 계보를 부여하였다.⁴⁷⁾

송대 신유학이 발흥하면서 왕통에 대한 평가는 활기찬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유학사의 전개과정에서 왕통이 차지하고 있는 도통론상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피일휴가 왕통을 맹자와 순자의 계승자로 인식했듯이, 宋初 三先生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石介는 “옛날의 聖人大儒로는 周公, 孔子, 孟軻, 荀卿, 文中子, 韓吏部가 있다.”⁴⁸⁾ 또는 “孟軻氏, 荀況氏, 揚雄氏, 王通氏, 韓愈氏는 五賢人이다.”⁴⁹⁾라고 말하고 있어 중국유학사의 도통론적 전개과정에서 왕통이 필수적인 인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석계는 도통의 종점을 한유에서 구하고 있는데, 송초 아직 성리학의 철학 체계를 분명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학의 자기정체성이 상당 부분 문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을 고려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⁵⁰⁾

송대 이학은 중국 유학사를 도학의 역사로 해석하고 공맹 이후 끊어진 도학을 송대에 회복했다고 간주했지만 공맹 이후 정주 이전의 주요 유학자를 중국 유학사의 인물 계보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주희와 여조겸이 공편한 『근사록』과 주

46) 李翱, 『李文公集』 권6 「答朱載言書」; 楊永安, 앞의 책 218면에서 재인용. 「文中子碑」를 지은 司空圖도 피일휴의 영향을 받아 중국 유학의 도가 공자, 맹자, 순자를 거쳐 왕통에게 도달했음을 말했다.

47) 皮日休, 『皮子文藪』 권9 「請韓文公配饗太學書」; 楊永安, 위의 책 219면에서 재인용.

48) 石介, 『石徂徠集』 권15 「答歐陽永叔書」; 楊永安, 위의 책 221면에서 재인용.

49) 石介, 『石徂徠集』 권7 「尊韓」; 楊永安, 위의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50) 周敦頤에게 『太極圖』를 전수한 연원에 놓여 있는 種放은 文의 정수를 漢의 揚雄, 隋의 王通, 唐의 韓愈로 꼽았는데 이는 유학의 도통이 사실상 文統과 서로 일치했음을 뜻한다. (『宋文鑑』 권149 「退士傳」; 楊永安, 위의 책 219면에서 재인용)

회와 문인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주자어류』 「전국한당제자」에는 순경, 양옹, 동중서, 왕통, 한유의 학문에 대한 비평을 발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들 다섯 유학자에 대한 인물 비평이 풍부한데, 전술했지만 주희가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은 왕통이었다. 왕통이 비록 본령공부는 부족했지만 천하에 뜻을 두었고 삼대 제도를 알았으며 식견이 고명하고 時事와 文史를 논한 곳에 불만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삼대의 이념 세계와 후세의 역사 세계를 혼동하여 續經을 편찬한 것이 근본적 한계였다고 인식하였다.⁵¹⁾

송대에 형성된 ‘전국한당제자’ 지식은 조선 유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서 왕통은 대개 중국 유학사를 논할 때 한당 유학 관련 논의에 수반되는 식으로 언급되었다. 한당 유학이 송대 정주학과 질적으로 구별됨을 인정하면서 그 사례를 찾는 방식이었다. 吳光運은 유학사에서 師友淵源에 관해 묻는 책문을 출제했는데 한당 유학사의 주요 인물로 동중서, 왕통, 한유를 배치했다.⁵²⁾ 黃德吉은 중국 유학사를 정리한 『道學源流纂言』을 편찬했는데 한당 유학을 공맹 유학의 지류로 보고 한당 유학자로 양옹과 왕통을 비판적으로 소개했다.⁵³⁾ 李源祚는 漢儒가 도학이 없이 古訓이나 모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순경, 양옹, 馬融, 왕통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⁵⁴⁾

正祖는 ‘學’에 관한 책문에서 한당 유학자로 동중서, 양옹, 왕통, 한유, 李翱를 꼽았는데 동중서가 과연 醇儒인지, 양옹에게서 취할 점이 있는지, 왕통이 倡學한 공이 작지 않은데 王莽에 비견되는 평가를 받아도 좋은지, 한유의 인성론은 荀·揚과 다름없고 이고의 復性說에 훨씬 못 미치는데 정확이라 평가해도 좋은지를 물었다.⁵⁵⁾ 아마도 주희가 논한 ‘전국한당제자’ 중에서 왕통을 높이 평가한 최초의 조선 유학자는 柳希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는 경연에서 ‘文中子是 秦漢 이래 大儒입

51) 『朱子語類』 권137 「戰國漢唐諸子」.

52) 吳光運, 『藥山漫稿』 권11 「策題」, 33-36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3) 黃德吉, 『下廬集』 권10 「道學源流纂言後敘」.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4) 李源祚, 『凝窩集』 권11 「山房萬物錄」, 8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5) 正祖, 『弘齋全書』 권50 「策問三」 〈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니다. 동중서에 버금가고 한유보다 나으며 순황, 양옹보다 훨씬 뛰어납니다.’라고 말했다.⁵⁶⁾ 이것은 朴世堂이 순경, 양옹, 왕통, 한유의 우열을 논하여 왕통을 최하로 간주한 것과는 정반대의 관점이었다.⁵⁷⁾

위에서 유희춘이 순경, 양옹, 동중서, 왕통, 한유 다섯 사람을 비교한 것은 김창협이 『오자수언』의 역사적 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유희춘은 『朱子語類箋釋』과 『朱子大全書集覽』을 편찬할 정도로 주희의 학술에 해박했고 『海東儒先錄』을 편찬할 정도로 유학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으니⁵⁸⁾ 유희춘의 왕통 인식은 주희의 戰國漢唐諸子 인식에 기반한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였을 것이다. 앞서 『오자수언』의 부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희 역시 왕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주희와 陳亮과의 王·霸 논쟁에서 진량이 왕통을 내세워 漢唐의 역사를 강조하자 주희가 이를 비판하며 한당의 역사는 仁義를 가차한 수준이고 삼대와 한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이다.⁵⁹⁾ 『오자수언』의 부록에 수록된 주희의 『왕씨속경설』은 그 산물인바 ‘양한이 삼대가 되기 부족할 줄 알지 못했다’는 주희의 논평은 왕통에 대한 비판이자 왕통을 내세운 진량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였다.

주희와 진량의 王·패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왕통을 인식할 경우, 왕통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희가 왕통에 대해 ‘양한이 삼대가 되기 부족할 줄 알지 못했다’고 비평했듯이 왕통의 학술에 대한 이해에서 삼대-양한 문제는 중요한 의제였다. 송시열은 왕통이 자기 학설을 聖經처럼 꾸미고 唐初의 문무 명신을 취해 孔門 제자처럼 꾸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희가 한당의 비루함을 극언해 陳亮을 논척하고 다시 왕통까지 변화했다고 보았다.⁶⁰⁾ 이는 송시열이 명확히

56) 柳希春, 『眉巖集』 권15 『經筵日記』,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文中子, 秦漢以來大儒也. 亞於董仲舒, 優於韓愈, 遠勝荀況楊雄者也.”

57) 朴世堂, 『西溪集』 권7 『荀揚王韓優劣論』,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왕통의 僞, 양옹의 僞, 순경의 粗, 한유의 疏를 지적했다.

58) 李喜朝, 『芝村集』 권29 『雜記』 2-4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9) 조남호, 2009, 『왕통 사상의 철학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51, 113-119면.

60) 宋時烈, 『宋子大全』 권46 『答李雲舉』 32-33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주희와 진량의 논쟁에 왕통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송시열은 왕통과 윤휴를 비교해 왕통이 공자의 『춘추』를 모방해 후대의 역사를 포괄한 것도 주희가 ‘吳楚僭王’이라고 비판했는데 윤휴는 아예 주희의 註說을 제거하고 새로 경서를 만들어 천하를 바꾸려고 하니 사문의 난적이라고 분노했다.⁶¹⁾ 왕통은 주희-진량의 왕·패 논쟁에 연결된 문제의 인물일 뿐 아니라 송시열에 의해 윤휴에게 비교 대상으로 부과된 문제의 인물이 되어 버렸다.

조선 유학자의 왕통 인식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왕통 비평에서 도출되었지만 송유가 아닌 명유에 의해 자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찍이 명대 유학자 왕수인은 문인과의 대화에서 왕통과 한유를 비교해 왕통은 유현이니 뛰어난 문인 정도에서 그치는 한유를 학문적으로 훨씬 능가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⁶²⁾ 李顯益은 왕수인의 문집을 비판하면서 왕수인의 이러한 왕통 비평도 문제삼았다. 즉 왕통 학술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왕통이 양한의 ‘七制之主’를 삼대의 聖王에 비함으로써 義·利와 王·霸의 분별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 왕통과 한유를 비교하면서 왕수인처럼 왕통을 유현으로 한유를 문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었다.⁶³⁾ 이현익은 『오자수언』을 편찬한 김창협이 문인이고 『오자수언』에 서문을 쓴 어유봉과는 심성론을 논변한 논적인데,⁶⁴⁾ 후술하겠지만 『오자수언』에 왕통의 ‘칠제지주’가 인용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왕수인의 왕통론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김창협-어유봉의 『오자수언』의 관점에 대한 이의 제기의 의미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송시열과 이현익의 왕통 비판은 김창협이 왕통 ‘수언’ 작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오자수언』은 왕통의 언설에서 발견되는 삼대와 양한의 문제를 주희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 그럼에도

61) 宋時烈, 『宋子大全』 권91 「答李汝九-甲子六月一日」. 황경원이 편찬한 「명배신전」에 수록된 송시열의 전기도 왕통의 문제점과 윤휴의 문제점을 비교하는 송시열의 언설을 서두에 기재했다(黃景源, 『江漢集』 권32 「明陪臣傳六」).

62) 王守仁, 『陽明全集』 권1 「傳習錄」(楊永安, 앞의 책 229면에서 재인용).

63) 李顯益, 『正菴集』 권17 「陽明集辨」.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64) 호락논쟁 성립사의 관점에서 김창협·김창흡 문하의 어유봉과 이현익의 성리설 논쟁은 낙학 형성의 중요한 사건으로 파악된다(문석윤, 2006,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동과서).

김창협은 왕통의 학문이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의 학문임을 신뢰하였고 그러한 신뢰의 결과물이 『오자수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유봉의 기록에 따르면 김창협은 『오자수언』이 완성되자 읽어보고 ‘아주 좋다’고 만족해하면서 왕통의 글은 『논어』 같고 한유의 글은 『맹자』 같다고 말했다.⁶⁵⁾ 자신이 편찬한 『오자수언』에 의해 선별된 왕통의 글을 『논어』에 비하다니 실제로 김창협이 이런 자화자찬을 했을까 의심되고 어유봉에 의해 윤색된 어록이 아닐까 의심되지만, 송시열-이현익의 왕통 비판과는 대극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 金春澤은 명대 沈津이 편찬한 『百家類纂』에서 유가, 법가, 잡가, 병가 19가에서 정수가 되는 문장을 뽑아 『諸子通選』을 편찬했는데 여기에 왕통의 『중설』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⁶⁾

왕통은 명대에 들어와 가정연간의 祀典 釐整으로 文廟에 종사되는 영예를 입었다. 왕통의 문묘종사는 漢代에 ‘訓詁專門之學’을 전수하여 당 태종대에 문묘에 종사된 상당수의 漢儒들이 義理之學의 실천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단행된 祀典 釐整과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왕통의 문묘종사는 왕통이 명대에 의리 지학의 기준에 합당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유학자 趙憲은 중국에 사행을 가서 이와 같은 사전 이정을 목도하고 귀국한 후 이를 반영해 조선의 문묘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그는 왕통의 학문이 정확에 가깝고 왕통의 격언에 순경과 양옹이 말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평가했다. 왕통과 함께 추향된 后蒼, 歐陽修, 胡瑗, 楊時, 陸九淵, 薛宣 등의 학문도 함께 논평했는데 주희와 대립한 육구연에 대해서는 명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⁶⁷⁾ 조헌을 이어 李廷龜도 조선 문묘 사건의 이정을 논했는데 명대에 증입된 중국 유학자 중에서 후창, 왕통, 구양수, 호원, 양시, 설선, 胡居仁 등에 대해서는 조선 문묘에도 추향할 필요가 있으나 육구연, 陳獻章, 王守仁 등은 이단의 학문을 했기 때문에 불가함을 말했다.⁶⁸⁾

65) 金昌協, 『農巖別集』 권3 「語錄」 〈魚有鳳錄〉 17면.

“五子粹言既成, 先生曰, 讀之甚好, 又曰, 文中子似論語, 韓子似孟子.”

66) 金春澤, 『北軒集』 권17 「諸子通選序」.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이 책의 儒家로 맨 먼저 선입된 문헌은 晏子春秋이고 맨 마지막에 선입된 문헌은 왕통의 『중설』이다.

67) 趙憲, 『重峯集』 권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68) 李廷龜, 『月沙集』 권60 「文廟祀典釐正啓本」.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廷龜는 명대에 문묘를 釐整해서 絕學을 창명하고 사문에 공을 세운 왕통, 양시, 호원, 구양수가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조선은 아직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묻는 책문을 출제하기도 했다.⁶⁹⁾

왕통은 명대에 문묘 종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 학문이 적극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를테면 王守仁은 왕통과 한유를 비교하는 서애의 물음에 대하여 유현의 경지에 있는 왕통이 文人에 불과한 한유를 훨씬 능가한다고 비평하였고,⁷⁰⁾ 顧炎武는 학문의 본질을 경세학에서 구하면서 왕통의 경세학을 통하여 당 태종이 정관지치를 이룩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⁷¹⁾ 邵經邦이 『弘簡錄』에서 왕통을 隋唐儒學의 第一人이라고 극찬한 것도⁷²⁾ 명대의 왕통 인식의 특징적인 양상의 하나였다. 조선의 경우 양명학에 친화적인 李種徽는 왕통이 탁한 세상의 佳君子이며 왕통의 저술 『中說』도 魏晉 이래 이에 비할 책이 없고 聖學을 얻은 것이 알지 않다고 칭찬했다.⁷³⁾ 강화학파에 속하는 李令翊은 왕통을 위한 專論을 지은 보기 드문 조선 문인이었다. 그는 왕통의 續經 편찬에 가해지는 비난에 대해 속경 편찬은 좋은 의도에서 나왔고 왕통 시대의 經은 반드시 육경 같은 엄숙한 개념이 아니었으며 『중설』에서 보이는 속경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도 후대인의 가필이라 생각했다. 그는 주희가 왕통을 비판하긴 했으나 荀·揚의 空言이 왕통의 近正만 못하다고 했고 한유의 浮華가 왕통의 懇惻만 못하다 했으며 동중서도 본령은 왕통보다 낮지만 治體와 行事は 왕통보다 못하다고 했던 것을 들어, 유학자로서 왕통의 등급이 동중서에 비견되고 한유를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왕통이 조선의 문묘에서 출향되어 있음을 애석하게 여겼다.⁷⁴⁾

조선 유학자의 왕통 평가에서 왕통이 수 문제에게 태평책을 헌책한 것은 논란

69) 李廷龜, 『月沙集』 권33 「辛亥年殿試策題」.

70) 王守仁, 『陽明全集』 권1 「傳習錄」; 楊永安, 앞의 책 229면에서 재인용.

71) 顧炎武, 『亭林餘集』 「與潘次耕札」; 楊永安, 위의 책 230-231면에서 재인용.

72) 邵經邦, 『弘簡錄』; 楊永安, 위의 책 229면에서 재인용.

73) 李種徽, 『修山集』 권14 「漫筆」 37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文中子翩翩濁世之佳君子也. 中說一部, 往往有格言嘉論, 魏晉以來無其比, 其得於聖學者非淺淺矣.”

74) 李令翊, 『信齋集』 책2 「論文中子」.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이 되는 문제였다. 成海應은 왕통의 학술이 荀·揚에 비하면 조금 바르고 유가의 학설임은 분명하지만 자중하지 못하고 수 문제에게 태평책을 헌책한 것이 사대부의 처신으로 문제가 있다고 논했다. 『중설』에 대해서는 지극한 이치를 담은 구절도 있다고 평했으나 후인이 부회한 것이라는 주희의 의심을 빠뜨리지 않았다.⁷⁵⁾ 반면 權璉夏는 왕통이 ‘隋唐間 偉人’인데 자중하지 않고 수 문제에게 태평책을 헌책했다고 비판받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만약 당 태종에게 태평책이 헌책되었다면 古道를 만회했을까 상상해 보았다. 그는 왕통에 대한 程朱의 평가에 억양이 있음을 고려하면서도 『중설』이 쉽게 얻지 못할 좋은 의론임을 주장했다.⁷⁶⁾

물론 왕통의 태평책 헌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가령 鄭道傳은 왕통이 천하의 병란을 구원하고자 태평책을 바친 인물임에 주목했고,⁷⁷⁾ 왕통을 인용해 ‘正主庇民’을 위한 재상의 ‘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했다.⁷⁸⁾ 권연하가 왕통의 태평책이 당 태종에게 헌책되었다더라면 하고 상상한 것은 전술했지만 중국의 고염무가 왕통 학문의 본령이 경세학이고 왕통의 경세학을 통해 당 태종이 정관지치를 이룩했음을 높이 평가한 것과 상통한다. 오히려 문제는 왕통이 아니라 수 문제였다. 정조는 賈誼와 왕통을 비교해 가의의 治安策은 漢 文帝가 대략 시행했지만 왕통의 태평책은 수 문제가 전혀 채용하지 않았으니 수 문제가 한 문제보다 부끄럽고 왕통의 불우함이 가의보다 심하다고 말했다.⁷⁹⁾ 또한 왕통이 동중서 이후 처음 배출된 학문하는 선비였고 왕통 문하의 房玄齡이 왕통의 학문으로 당의 치세를 도왔음도 함께 말했다.⁸⁰⁾ 그러나 安錫徹의 『房玄齡論』은 방현령이 왕통에게 배운 것이 양한의 ‘七制之主’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리를 앞세우고 군덕의 성취에 실패했다고 비평했다.⁸¹⁾ 역시 주희와 진량의 왕·패 논쟁의 핵심인 삼대-양

75) 成海應, 『研經齋全集』 책10 『史論下』 〈王通〉.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76) 權璉夏, 『頤齋集』 권2 『上定齋先生-辛丑』.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77) 鄭道傳, 『三峯集』 권2 『文中子』.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78) 鄭道傳, 『三峯集』 권5 『經濟文鑑』.

79) 正祖, 『弘齋全書』 권116 『經史講義 五十三』 〈綱目〉.

80) 위와 같음.

81) 安錫徹, 『雪橋集』 권5 『房玄齡論』.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중국에서 왕통에 대한 평가는 청대 이후 점차 급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것은 고증학이 새로운 학문사조로 부상하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현상이었다. 朱彝尊은 당송원명의 대표적인 경학가를 고찰한 『經義考』를 저술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왕통이 실제 존재하였던 인물이 아님을 주장하였다.⁸²⁾ 왕통과 그 저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도 보이는데, 양옹이 성인의 언어를 模擬했다면 왕통은 성인의 사적을 모의했고 왕통의 저술과 강학이 종사에 화란을 끼쳤다고 힐난했다.⁸³⁾ 이러한 시각은 梁啓超의 『中國歷史研究法』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였다. 양계초의 해석에 의하면, 수말에 妄人이 왕통이라 칭하고 스스로 공자에 비했는데, 이러한 病狂之人과 妖誣之書는 실로 인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⁸⁴⁾

조선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왕통의 학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李珥는 『擊蒙要訣』에서 비방을 그치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왕통을 인용해 ‘自修’와 ‘無辨’을 말했는데,⁸⁵⁾ 이것은 이이뿐만 아니라 조선의 다른 유학자들도 곧잘 인용하는 왕통의 명언이었다. 조현명이 말했듯 왕통이 참람되게 속경을 편찬한 문제점은 있어도 왕통의 명언은 늘상 선유에게 인용되고 있었다.⁸⁶⁾ 이런 견지에서 김창협이 추구한 왕통의 ‘수언’은 중국 유학사에서 주희가 설정한 ‘전국한당제자’의 학문을 성인의 순수한 유학으로 정련하는 작업인 동시에 조선 유학자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왕통 명언 모음집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었다.

82) 朱彝尊, 『經義考』; 楊永安, 앞의 책 231면에서 재인용.

83) 『四庫全書總目』 권91 子部 儒家類1 『四庫全書簡明目錄』도 동일한 관점이었다(『四庫全書簡明目錄』 권9 子部1 儒家類).

84)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제5장 『史料之蒐集與鑑別』; 楊永安, 앞의 책 231-232면에서 재인용.

85) 李珥, 『栗谷全書』 권27 『擊蒙要訣』 〈接人章 第九〉.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86) 趙顯命, 『歸鹿集』 권13 『與錫汝書-第四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 『五子粹言』의 王通 이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창협이 『오자수언』을 편찬하여 ‘오자’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송대에 형성된 ‘오현’의 관념과 주희가 논평한 ‘전국한당제자’의 범주에 의하여 마련되고 있었다. 그가 공맹 유학 이후 정주학 이전 단계의 중국 유학사에서 5인의 유학자를 엄선해 이들을 ‘오자’라고 칭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입혀진 ‘오자’의 ‘수언’을 편찬하는 것은 적어도 조선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오자’에 대한 주희의 비평이 선재하고 ‘오자’ 중에서도 왕통의 경우는 주희와 진량 사이의 왕·패 논쟁에서 문제적 인물로 돌출되었기 때문에, 특히 왕통의 ‘수언’을 완성하는 작업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송시열과 이현익의 왕통 인식을 앞서 소개했지만 이미 조선 사회에서 왕통을 논할 때 삼대와 양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김창협이 구체적으로 왕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자수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다. 『오자수언』에는 ‘오자’에 대한 김창협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언설도 발견되지 않는다. 수록된 모든 언설들은 ‘오자’의 작품 속에서 김창협이 ‘수언’으로 판단하여 정선한 문장의 모음에 불과하고, 왕통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김창협의 왕통 이해를 논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자수언』의 『王子』편과 왕통의 현전 저술로 알려져 있는 『중설』을 직접 대조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오자수언·왕자』의 총 127칙에 대한 출전을 분석한 결과가 <부록>의 도표이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김창협이 『오자수언·왕자』를 편찬하면서 왕통의 『중설』에서 어떠한 언설을 편입하였는지 동시에 어떠한 언설을 산삭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하 김창협의 평가 기준이 편입과 산삭의 양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경학론과 경세론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경학론의 측면에서 ‘수언’의 필삭 기준을 살펴보자. 『중설』과 비교하여 ‘수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다음 구절이다.

子謂叔恬曰：“汝爲春秋乎？春秋於王道，是輕重之權衡，曲直之繩墨也。失則無所取衷矣。”⁸⁷⁾

子謂叔恬曰：“汝爲春秋元經乎？春秋元經於王道，是輕重之權衡，曲直之繩墨也。失則無所取衷矣。”⁸⁸⁾

‘수언’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설』의 언설을 정선하는 경우 원문을 고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수언’의 위 구절은 『중설』의 원문에서 의도적으로 ‘元經’을 삭제한 것이라 주목된다. 『원경』이란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여 춘추시대를 포괄한 것처럼 왕통이 쯔의 동천에서 陳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포괄한 저술이다. 따라서 ‘수언’에서 ‘원경’을 고의로 삭제하였다는 것은 김창협이 왕통이 저술한 『원경』을 참람된 저술로 보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원경』뿐만이 아니다. 『중설』에는 왕통과 문인 사이에 왕통이 지은 續經들, 즉 『續詩』, 『續書』, 『禮論』, 『樂論』, 『贊易』, 『元經』에 관한 대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협은 이와 관련된 언설을 모두 산삭하고 ‘수언’에 편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왕통의 續經들을 인정할 경우 經書가 속편의 대상으로 역사화됨으로써 경서 그 자체의 고전적인 가치와 초역사적인 권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니 유학자로서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라 하겠다. 동시에 왕통의 속경에 대해 송대 도학자들이 기왕에 내비쳤던 논평들이 작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가령 程灝·程頤 형제는 왕통의 속경에 대하여, 漢代의 制詔를 수집하여 『續書』를 편찬하고 晉·宋·後魏·北齊·北周·隋의 六代의 詩를 채집하여 『續詩』를 편찬한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었다.⁸⁹⁾ 이것은 六經이 상징하는 三代의 이념세계와 續經이 반영하는 兩漢의 역사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별을 왕통이 무시하였다는 경고의 의미를 함축하

87) 『五子粹言·王子』 제40칙.

88) 『中說』 권3 『事君編』 4-11-5-72.

89) 程顥·程頤, 『河南程氏遺書』 권19 『伊川先生語』, (楊遵道 錄) “文中子續經甚謬, 恐無此. 如續書始於漢, 自漢已來制詔, 又何足記? 續詩之備六代, 如晉宋後魏北齊後周隋之詩, 又何足采?”

는 것이었고, 朱熹가 『王氏續經說』에서 말한 대로 왕통은 “兩漢이 三代가 되기 부족한 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김창협이 『중설』에서 왕통의 속경과 관련된 언설을 일절 산삭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통의 속경 편찬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별개로 왕통이 견지한 경학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포섭하고자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번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김창협이 『중설』의 해당 원문에서 ‘원경’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언설을 완전히 산삭하지 않고 ‘원경’이라는 단어만 삭제한 채 ‘수언’에 편입한 것으로 보면, 이 언설에서 왕통이 왕도정치의 사상적 근거로서 『춘추』를 부각한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중설』에는 왕통이 왕도정치의 실현과 관련지어 『춘추』와 더불어 『주례』를 매우 중시하여 잠시도 『주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언설이 있는데 ‘수언’ 역시 이 언설을 놓치지 않고 수록하였다.⁹⁰⁾ 이와 관련하여 石介는 『周禮』와 『春秋』가 각각 王制와 王道를 밝혀 요순삼대의 치를 일으킨 것인데 漢武帝와 隋文帝가 각각 董仲舒의 『春秋』와 王通의 『周禮』를 쓰지 않았음을 개탄한 적이 있었다.⁹¹⁾ 김창협이 『중설』에서 『춘추』와 『주례』에 관한 이와 같은 언설을 정선한 것은 왕도정치의 경학적 근거로서 특별히 『춘추』와 『주례』를 인정하였다는 뜻이 될 것이다.

경서를 왕도정치의 경학적 근거로서 인식한다고 할 때 경서에 대한 지엽적인 주석이 경서 본연의 실천적인 역할을 은폐하는 위험을 우려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를테면 김창협이 ‘수언’에서 드러낸바 왕통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대 경학이 발흥하면서 전통으로 자리잡은 師法과 傳注의 방법이 이제는 도리어 경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경학의 방법은 먼저 사법과 전주의 죽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경서에 대한 스스로의 새로운 傳注를 만들자는 것이다.⁹²⁾ 이 언설이 노리고 있는 표면적인 비판의 과녁은 물론 양한의

90) 『五子粹言·王子』 제93칙; 『中說』 권8 『魏相編』 3-10-3-2.

91) 石介, 『石組徠集』 권7 『二大典』.

92) 『五子粹言·王子』 제28칙; 『中說』 권2 『天地編』 7-15-7-4. 子曰: “蓋九師興而易道微, 三傳作而春秋散.” 賈瓊曰: “何謂也?” 子曰: “白黑相渝, 能無微乎? 是非相擾, 能無散乎? 故

경학전통이고 그것이 왕통의 본래의 비판 대상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김창협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언설은 그가 『農巖雜識』에서 토로한 그대로 주자학 본연의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주자학의 ‘師法’과 ‘傳注’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의 목소리일 수도 있었다. “史傳이 흥하여 經道가 폐하였고, 記註가 흥하여 史道가 誣하였으니 이 때문에 異端을 미워한다.”는 언설⁹³⁾이 ‘수언’에 채택된 것도 위 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서를 師法과 傳注에서 벗어나 其人의 神明에 입각하여 해석의 지평을 열어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六經의 속편으로 續經을 편찬한 왕통이고 보면 왕통에게 있어 그 해석의 지평은 六經의 이념세계와 續經의 역사세계가 합일되는 지점, 다시 말해 經과 史의 일치성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김창협이 ‘수언’에서 드러낸바 왕통은 『시경』, 『서경』, 『춘추』를 서로 명확히 구별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성인의 述史라고 보고 있다.⁹⁴⁾ 이것은 아직 六經皆史의 명제를 제출한 청대의 경학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지만, 왕통의 속경이 사실상 『속시』, 『속서』, 『원경』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때 經即史의 지향성에서 왕통의 續經 찬술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창협이 이 언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언’에 편입한 것은 왕통의 경학관에 동의하여 經을 삼대의 史로 보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三代와 兩漢에 대한 견해로 돌아간다. 經을 삼대의 史로 본다면, 삼대와 양한의 본질은 결국 史 안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닌가?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齊韓毛鄭，詩之末也，大戴小戴，禮之衰也，書殘於古今，詩失於齊魯，汝知之乎？”賈瓊曰：“然則無師無傳，可乎？”子曰：“神而明之，存乎其人，苟非其人，道不虛行，必也傳又不可廢也。”

93) 『五子粹言·王子』 제66칙; 『中說』 권5 『問易篇』 5-5-7.

94) 『五子粹言·王子』 제1칙; 『中說』 권1 『王道篇』 1-9-2-3. “子謂薛收曰昔聖人述史三焉，其述書也，帝王之制備矣，故索焉而皆獲，其述詩也，興衰之由顯，故求焉而皆得，其述春秋也，邪正之跡明，故考焉而皆當，此三者，同出於史而不可雜也，故聖人分焉。”

子曰：“四民不分，五等不建，六官不職，九服不序，皇墳帝典，不得而識矣，不以三代之法統天下，終危邦也。”⁹⁵⁾

文中子曰：“四民不分，五等不建，六官不職，九服不序，皇墳帝典，不得而識矣，不以三代之法統天下，終危邦也。如不得已，其兩漢之制乎？不以兩漢之制輔天下者，誠亂也已。”⁹⁶⁾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삼대의 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의 언설을 ‘수언’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정작 왕통의 이 언설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친 문장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완결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즉 원래의 의미는 삼대의 법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양한의 제도를 고려해도 좋다는 것이다. 김창협이 ‘수언’을 편찬하면서 대개 『중설』에 수록된 언설들의 완결된 단락을 온존한 상태에서 취사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처럼 언설의 후반부를 완전히 삭제한 상태에서 의미를 변형시켜 ‘수언’에 편입시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그만큼 김창협이 삼대와 양한의 직접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왕통의 태도를 억누르고 대단히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중설』의 이 구절이 주희와 진량의 논쟁에서 논점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⁹⁷⁾ 이런 식으로 양한을 삭제해서 왕통이 삼대를 중시한 것처럼 개조한 것은 이 문제에서 주희를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수언’으로 편입된 왕통의 언설들은 『중설』에 있던 본래의 논조를 상실하고 兩漢에 대하여 친화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 ‘수언’에 편입된 언설들은 이를테면 婦人이 일에 간여하여 漢道가 위태로웠고 大臣이 권력을 균점하여 魏命이 어지러워졌다는 식이다.⁹⁸⁾ 또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행하였던 封禪이 古禮에 없는 낭비이며 천하에 과시하려는 秦漢의 侈心이라는 식이다.⁹⁹⁾ 여기서 秦漢의 封禪을 비판한 『중설』의 이 언설에 대해서는 二程이 지극히 좋다고 칭찬한 적이 있으므로¹⁰⁰⁾ 김

95) 『五子粹言·王子』 제126칙.

96) 『中說』 권10 『關朗篇』 3-7.

97) 조남호, 앞의 논문.

98) 『五子粹言·王子』 제91칙 ; 『中說』 권7 『述史篇』 8-1-4.

99) 『五子粹言·王子』 제5칙 ; 『中說』 권1 『王道篇』 4-8-11.

창협이 ‘수언’에 편입한 것도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兩漢의 정치에 대한 비유적인 칭양마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김창협이 ‘수언’에서 드러낸 왕통은 ‘七制之主’를 말하고 있다.¹⁰¹⁾ 여기서 七制之主란 왕통이 『續書』에 수록한 한대의 현군으로 문무의 공업을 세운 일곱 임금을 가리킨다. 즉 高祖, 孝文, 孝武, 孝宣, 光武, 孝明, 孝章이 그것이다.¹⁰²⁾ 따라서 ‘수언’에 이 언설이 수록된 것은 일견 양한의 현군을 칭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똑같이 ‘칠제지주’를 칭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언’에 실리지 못한 『중설』의 언설이 있다. 즉 이 언설은 양한의 ‘칠제지주’가 仁, 義, 公, 恕로 천하를 다스렸으며 예악의 완성만 있었다라면 삼대의 정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자부한 내용이다.¹⁰³⁾ 결국 김창협은 똑같이 양한의 현군을 칭찬하는 언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언설은 산삭하는 대신 매우 은유적인 언설을 선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김창협이 직접적으로 양한을 삼대에 비견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유적으로는 양한의 역사적 위상을 긍정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김창협은 ‘수언’에서 왕통의 속경 관련 언설을 일절 산삭하였지만 예외적으로 단 한 번 제85칙에서는 왕통이 『원경』에서 구사한 書法과 관련된 언설을 ‘원경’이란 어휘까지 보존해 주면서 ‘수언’에 편입하고 있어 주목된다.¹⁰⁴⁾ 이 언설의

100) 程顥·程頤, 『河南程氏遺書』 권19 『伊川先生語』, (楊遵道 錄) “文中子言, 封禪之費非古也, 其秦漢之侈心乎, 此言極好.”

101) 『五子粹言·王子』 제14칙: 『中說』 권1 『王道篇』 6ㄴ3-4. “子曰: ‘七制之主, 其人可以即戎矣.’” 이것은 『논어』의 ‘子曰,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即戎矣.’(『論語·子路』 제29칙)를 모방해 만든 문장이다.

102) 『朱子語類』 권137 『戰國漢唐諸子』, “七制之說亦起於通, 有高文武宣光武明章制, 蓋以此二典也”; “七制之主, 亦不知其何故以七制名之, 此必因其續書中曾採七君事跡以爲書, 而名之曰七制, 如二典禮例今無可考, 大率多是依倣而作.”

103) 『中說』 권2 『天地篇』 4ㄴ9-5ㄴ3. “文中子曰: ‘二帝三王, 吾不得而見也, 捨兩漢, 將安之乎? 大哉, 七制之主! 其以仁義公恕統天下乎! 君子樂其道, 小人懷其生, 四百年間, 天下無二志, 其有以結人心乎! 終之以禮樂則三王之舉也.’”

104) 『五子粹言·王子』 제85칙: 『中說』 권7 『述史編』 2ㄴ9-3ㄴ10.

내용은 왕통이 『원경』에서 陳이 隋에 항복한 사건을 ‘陳亡’이라 쓰지 않고 ‘晉宋齊梁陳亡’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이나는 叔恬의 질문에 대한 왕통의 대답이다. 왕통의 대답은 간단하다. 중요한 것은 陳의 멸망이 아니라 晉이 東遷하면서 江東에 옮겨 온 중국의 禮樂이며, ‘晉宋齊梁陳亡’이라 씀으로써 陳의 멸망이 아니라 晉의 예악의 멸망에 초점을 옮길 수 있고 이로써 陳의 멸망 후에도 晉의 遺民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 언설에서 왕통은 宋이 중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을 들어 晉의 전통이 宋까지 계승되고 齊부터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왕통이 『속시』를 지어 晉, 宋, 後魏, 北齊, 北周, 隋의 ‘六代’의 시를 채집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의식과 접맥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김창협은 ‘수언’에서 왕통의 『속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속시』에 반영되어 있는 ‘육대’의 역사계승의식이 수용될 여지는 없었다.¹⁰⁵⁾ 그렇다면, 김창협이 왕통의 속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차 없이 산삭하던 원칙을 여기면서까지 위의 예문을 특기한 까닭은 명청교체기의 역사경험을 짊어지고 살았던 지식인이 남조의 멸망과 수의 통일이라는 역사의 大河에 감정을 이입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통이 역설한 晉의 禮樂과 晉의 遺民의식은 김창협이 높이 평가한 명말 청초 錢謙益도 주목한 바 있는데 김창협의 역사적 상상력 안에서 明의 예악과 明의 유민의식으로 변주되고 있었을 것이다.¹⁰⁶⁾

105) 왕통이 續詩에서 설정한 晉, 宋, 後魏, 北齊, 北周, 隋의 계보는 일관성 없는 작위적인 태도로 비판받기도 했다. (趙璉, 『荷樓集』 권11 「漫錄」, “文中子元經, 正統止於劉宋而移之於魏, 劉裕蕭道成其得國不正一也, 而或與或奪, 有何所據?”) 왕통이 송 다음의 정통 국가를 후위로 본 것에 대해 淸儒 李光地는 후위의 禮樂 修明을 중시한 올바른 관점으로 보았으나 조선 유학자 金邁淳은 이를 구차한 논법이라 비판하였다(金邁淳, 『臺山集』 권17 「闕餘散筆」 〈榕村第三〉). 남조의 송에서 북조의 후위로 이어지는 왕통이 창안한 이 계보의 성격에 대해서는 왕통 가문이 남조에서 북조로 이주했던 시점과의 일치성도 고려되고 있지만 역시 북위 효문제의 적극적인 한화 정책과 이에 따른 예교 질서의 구축이 주된 배경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주형, 2011, 『수말 유학자 왕통의 사상과 호한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35, 23-32면).

106) 명말청초 錢謙益은 『宋遺民錄』(程克勤)을 확대한 『廣宋遺民錄』(李長科)의 서문(李楷)에서 ‘宋의 존망이 중국의 존망’이라고 말한 것을 王通이 元經에서 陳의 멸망을 다섯 나라의 멸망이라고 한 뜻을 깊이 얻었다고 평가했다(錢謙益, 『有學集』 권49 「書廣宋遺民錄

5.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숙종조 유학자 김창협이 『오자수언』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수나라 유학자 왕통의 『중설』을 필삭한 권4 「왕자」를 분석했다. 『오자수언』은 김창협이 공맹 이후 정주 이전의 중국 유학자 순경, 동중서, 양응, 왕통, 한유 다섯 사람의 글을 필삭해서 정수가 되는 글을 모은 것이다. 일찍이 공맹 이후 정주 이전 시기의 중국 유학자에 대해서 주희는 ‘전국한당제자’라는 범주를 만들어 학술 비평을 수행했고 특히 수유 왕통에 대해서는 「왕씨속경설」이라는 별도의 학술 문자를 짓기도 했다.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한 『근사록』에서도 중국 유학사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들 다섯 유학자를 논평한 바 있다. 다만 김창협이 이들에게 ‘오자’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한유의 「독순」에서 제안했듯 완전히 순수하지 않은 이들의 언설을 순수하게 정련해서 ‘수언’을 만든 것은 조선 유학 초유의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작업한 ‘오자’ ‘수언’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했고 ‘오자’ ‘수언’으로 전달되는 왕통과 한유의 글이 마치 논어와 맹자 같다는 감상까지 표했다. 김창협은 ‘오자’의 ‘수언’ 작업까지 완성했고 그 유지를 받들어 문인 어유봉이 주희의 ‘오자’ 비평을 수집해서 부록으로 첨부해 마침내 어유봉의 서문(1737)과 함께 현전하는 『오자수언』이 완성되었다.

김창협이 ‘오자’ ‘수언’ 작업은 주희와 한유의 治學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었다.

後). 이는 전겸익이 『중설』에서 陳이 隋에 항복한 사건을 ‘陳亡’이라 쓰지 않고 ‘晉宋齊梁陳亡’이라고 쓴 이유를 밝힌 왕통의 구절을 읽고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김창협이 『오자수언』 「왕자」에서 왕통의 속경 관련 기록을 모두 산삭한 가운데 유일하게 元經이란 말까지 살려 주면서 이 구절을 채택한 배경으로 전겸익의 위 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창협은 전겸익의 『有學集』을 읽고는 명말의 대가라고 극찬하였고 전겸익의 명말 文弊 비판에 대해서도 찬동하였다(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11-12면). 전겸익이 왕통을 찬미한 사실은 조선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예컨대 許愈는 전겸익이 왕통을 공맹의 宗子라고 했음을 들어 明人의 학술이 기이하다고 평했다(許愈, 『厚山集』 권11 「隨錄」, 14면).

맹자와 순자의 차이를 ‘醇乎醇’과 ‘大醇小疵’로 구별하고 순자에 대한 필삭 작업을 통해 순자를 맹자와 같은 성인의 책으로 만들겠다는 한유의 치학은 김창협이 ‘수언’ 작업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주희의 ‘치학’과도 연결되는 것일까? 김창협은 이렇게 말했다. “世間の 儒者는 늘 ‘주자 후에 의리가 크게 밝아져 배우는 자가 절반을 공부해도 갑절의 공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주자가 爲學工夫의 次序와 道理의 精粗本末을 발명함이 또한 모두 詳博極盡하여 다시 餘蘊이 없으니 배우는 자가 다만 (주자의) 文을 熟誦하고 근본을 살펴 힘써 실천하여 유자의 路脈을 잃지 않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이면의 정미함과 많은 곡절은 주자의 當日工夫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깊이 自得에 이르겠는가! … 지금 二三分 工夫를 얻은 것을 가지고 문득 주자의 堂室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르니 어찌 멀지 않은가!”¹⁰⁷⁾ 주희의 당일공부, 곧 주희의 치학을 통해 자득에 도달하는 작업, 그런 의미에서 ‘오자’의 공부도 주희의 치학을 계승하는 일이었다.

김창협이 ‘오자’ 중에서 수나라 유학자 王通에 대한 ‘수언’을 어떻게 편찬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조선의 왕통 인식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해 준다. 중국 송대에는 문학의 관점에서 공맹 이후 중국 유학사의 주요 계보를 순경, 양옹, 왕통, 한유 등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했고 다시 이학의 관점에서 순경, 양옹, 동중서, 왕통, 한유 등을 ‘전국한당제자’의 범주에서 인식했다. 조선 유학자의 기본적인 왕통 인식도 공맹 이후 정주 이전의 한당 유학에 있었다. 문제는 송대 주희와 진량의 의·리, 왕·패 논쟁에서 발생한 삼대와 양한의 비교라는 논점이 왕통과 직결되었고 그 결과 주희가 직접 왕통의 학술을 비평하는 별도의 문자 『왕씨속경설』을 지었기 때문에 송대 지성사의 맥락에서 왕통은 상당히 문제적인 유학자로 부상해 있었다. 조선 유학자 송시열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주희가 한당의 비루함을 극언해 진량을 논척하고 다시 왕통까지 변화했다고 인식했으며, 이현익은 왕수인에 대한 학술 비판의 일환으로 왕수인이 찬미한

107) 『農巖集』 권31 『雜識』〈內篇一〉.

왕통이 양한을 삼대에 비함으로써 의·리와 왕·패의 분별에 혼란을 일으켰음을 비판했다.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의 교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문하의 김창협에게도 부여했고 이현익은 김창협을 스승으로 삼고 그 문하에서 『오자수언』을 완성한 어유봉과 심성론을 논변한 적수였으니 김창협-어유봉의 『오자수언』 권4 「왕자」는 송시열과 이현익의 왕통 인식에 대한 답변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자수언』 「왕자」는 왕통의 『중설』을 필사하면서 『중설』에서 왕통과 문인 사이에 왕통의 주요 저술인 속경(속시, 속서, 예론, 악론, 찬역, 원경)에 대한 대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의 모두 산삭하였다. 공자가 삼대의 문헌을 통해 육경을 산정했듯이 왕통은 양한 이후의 역사로 속경을 산정했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왕통의 학술에서 배제하고자 했다는 뜻이다. 시, 서, 춘추를 성인의 술사로 보는 왕통의 언설을 채록한 것은 경증사의 관점에 입각한 삼대의 역사적 이해를 중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삼대의 이념 세계와 양한의 역사 세계라는 경계를 허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천하에 질서를 구현하는 역사적 모델로서 삼대 대신 양한을 추구하는 왕통의 관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삼대의 법 대신 양한의 제도로 천하의 질서를 만든다는 왕통의 언설에 대한 찬반은 주희와 진량의 쟁점이기도 했는데 김창협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주희의 관점이었다. 그럼에도 왕통이 강조한 양한의 ‘칠제지주’에 관한 언설 중에서 급진적인 언설 대신 온건한 언설을 채록한 것은 주희-진량의 논쟁 구도를 떠나 양한의 평가에서 스스로의 자득을 추구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왕통은 『춘추』의 속경으로 편찬한 『元經』에서 남조의 마지막 왕조 陳의 멸망을 ‘陳亡’이라 기록하지 않고 ‘晉宋齊梁陳亡’이라 기록했음을 밝히며 그 이유를 남조에 지속된 쑤의 예악 전통에서 구했는데 『오자수언』에 왕통의 이 언설이 수록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왕통이 편찬한 속경 이름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원경이란 이름까지 보존한 사례이다. 김창협이 높이 평가한 명말청초 전점익은 왕통의 이 언설에 깊이 유념하여 중국의 국망기 遺民의 문제를 성찰했는데, 김창협이 왕통의 이 언설을 이토록 중시한 것은 진의 예악과 진의 유민의 식이라는 관념이 그의 역사적 상상력 안에서 명의 예악과 명의 유민의식으로 다가

왔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김창협이 『오자수언』에 보이는 왕통 이해는 김창협의 봉건-군현 비교론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을 시사한다. 김창협은 주희가 봉건과 군현을 깊이 있게 연구함이 없이 단지 삼대와 진의 일반 역사 비교론으로 이를 이해했는데, ‘봉건은 공이고 군현은 私’라는 명제는 옳지 않고 삼대의 봉건의 마음으로 진대의 군현의 법을 행함이 옳다고 논했다. 김창협의 봉건-군현 비교론은 주희로부터 자유롭게 개진된 ‘자득’의 논리였겠으나 이와 같은 자득이 가능했던 학술적 배경으로 양한으로 삼대의 모델을 대신하고자 했던 왕통의 학문에 대한 이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는 주희-진량의 논쟁 구도에서는 주희의 관점에서 왕통을 산삭했으나 이 논쟁과 무관하게 삼대 이후 양한의 역사적 모델로 천하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왕통의 기획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논문투고일(2020. 11. 15), 심사일(2020. 11. 25), 게재확정일(2020. 12. 10)

<부록> 『五子粹言·王子』 所收 언설들의 출전 일람¹⁰⁸⁾

#	『五子粹言·王子』	『中說』	참고
1	子謂薛收曰昔聖人述史三焉...	권1 『王道篇』 1-9-2-73	
2	子曰吾視遷固而下述作...	권1 『왕도편』 2-73-6	
3	子在長安楊素蘇夔李德林皆請見..	권1 『왕도편』 3-2-4-72	
4	子曰夫樂象成者也...	권1 『왕도편』 4-5-8	
5	子曰封禪之費非古也...	권1 『왕도편』 4-8-11	
6	子曰易樂者必多哀...	권1 『왕도편』 5-1-2	
7	子曰無赦之國其刑必平...	권1 『왕도편』 5-2-3	
8	叔恬曰舜一歲而巡五嶽...	권1 『왕도편』 5-1-2	
9	子曰廉者常樂無求...	권1 『왕도편』 5-3-4	
10	子曰五行不相沴則...	권1 『왕도편』 5-5-7	
11	子遊孔子之廟出而歌曰...	권1 『왕도편』 5-7-6-74	
12	楊素謂子曰天子求善禦邊者..	권1 『왕도편』 6-7-6-1	
13	子之家六經畢備..	권1 『왕도편』 6-1-2	
14	子曰七制之主其人可以即戎矣.	권1 『왕도편』 6-3-4	
15	子曰悠悠素餐者...	권1 『왕도편』 6-2-3	
16	子見劉孝標絕交論曰...	권1 『왕도편』 7-1-4	
17	子曰使諸葛亮而無死...	권1 『왕도편』 7-5	
18	李密見子而論兵...	권2 『天地篇』 1-7-9	
19	李伯藥見子而論詩...	권2 『천지편』 1-9-2-77	
20	子曰士有靡衣鮮食而樂道者...	권2 『천지편』 2-711	
21	子居家雖孩孺必狎...	권2 『천지편』 3-77-8	
22	子曰不就利不違害...	권2 『천지편』 3-710-11	
23	子躬耕或問曰不亦勞乎...	권2 『천지편』 3-711-3-2	
24	子藝黍登場歲不過數石...	권2 『천지편』 3-3-4	
25	子曰吾視千載已上聖人在上者...	권2 『천지편』 5-711-5-5	
26	子謂陳壽有志於士...	권2 『천지편』 6-8-10	
27	子曰使陳壽不盡美於史...	권2 『천지편』 6-11-7-75	
28	子曰蓋九師興而易道微...	권2 『천지편』 7-75-7-4	
29	子曰我未見見誘而喜...	권2 『천지편』 8-73-4	
30	房玄齡問事君之道...	권3 『事君篇』 1-73-5	
31	楊素使謂子曰盍仕乎...	권3 『사군편』 1-710-1-3	
32	子曰古之爲政者先德而後刑...	권3 『사군편』 1-3-5	
33	子曰古之從仕者養人...	권3 『사군편』 1-6-7	
34	子見牧守屢易曰...	권3 『사군편』 2-4-9	
35	賀若弼請射於子...	권3 『사군편』 2-9-3-2	

36	子謂文士之行可見謝靈運小人哉...	권3 「사군편」 3-5-3-11	
37	子曰達人哉山濤也...	권3 「사군편」 4-7-8	
38	房玄齡問史...	권3 「사군편」 4-2-4	
39	子曰郡縣之政其異列國之風乎...	권3 「사군편」 5-4-5-7	
40	子謂叔恬曰汝爲春秋乎...	권3 「사군편」 4-11-5-72	春秋元經
41	陳叔達爲絳郡守...	권3 「사군편」 6-2-5	
42	薛收問恩不害義儉不傷禮何如...	권3 「사군편」 6-5-8	
43	子閒居儼然...	권3 「사군편」 6-6-7-4	
44	子曰婚娶而論財...	권3 「사군편」 7-8-8-1	
45	子曰惡衣薄食小思寡欲...	권3 「사군편」 8-1-3	
46	子曰古之仕也以行其道...	권3 「사군편」 8-3-4	
47	子曰吏而登仕勞而進官...	권3 「사군편」 8-4-7	
48	無功作五斗先生傳...	권3 「사군편」 8-3-5	
49	子曰聖人之道其昌也潛...	권4 「周公篇」 1-7-6	
50	子曰通其變天下無弊法...	권4 「주공편」 2-9-10	
51	子曰安得圓機之士...	권4 「주공편」 2-11-2-1	
52	杜淹問崔浩何人也...	권4 「주공편」 2-2-3	
53	程元曰敢問爾風何也...	권4 「주공편」 2-4-3-72	
54	王孝逸謂子曰...	권4 「주공편」 4-3-5	
55	子曰大風安不忘危其霸心之存乎...	권4 「주공편」 4-6-8	
56	楊素謂子曰甚矣古之爲衣冠裳履...	권4 「주공편」 5-7-6-73	
57	邳公好古物...	권4 「주공편」 6-5-7	
58	子謂仲長子光曰山林可居乎...	권4 「주공편」 6-7-9	
59	鄭和譜子於越公曰...	권4 「주공편」 7-9-8-1	
60	李密問英雄...	권4 「주공편」 8-2-3	
61	魏徵曰聖人有憂乎...	권5 「問易篇」 1-6-1-10	
62	子曰處貧賤而不懣可以富貴矣...	권5 「문역편」 4-5-7	
63	程元曰三教何如...	권5 「문역편」 3-9-4-1	
64	子見耕者必勞之...	권5 「문역편」 5-2-3	
65	銅川夫人有病...	권5 「문역편」 5-4-5	
66	子曰史傳興而經道廢矣...	권5 「문역편」 5-5-7	
67	賈瓊問何以息謗乎...	권5 「문역편」 6-5-6	
68	子曰諸葛功近而德遠矣.	권5 「문역편」 6-6-7	諸葛王猛
69	子讀易之序卦曰...	권5 「문역편」 6-11-7-72	
70	子曰多言德之賊也..	권5 「문역편」 7-2-3	
71	賈瓊問羣居之道...	권6 「禮樂篇」 1-8-11	
72	繁師玄曰敢問稽古之利...	권6 「예악편」 2-1-2	

73	子曰居近識遠處今知古...	권6 「예악편」 2-2-3	
74	子曰恭則物服...	권6 「예악편」 2-3-4	
75	子謂京房郭璞古之亂常人也.	권6 「예악편」 3-1	
76	子曰冠禮廢天下無成人矣..	권6 「예악편」 3-3-6	
77	程元曰敢問風自火出家人何也...	권6 「예악편」 4-10-11	
78	或問君子子曰至微至章至柔至剛...	권6 「예악편」 4-5-6	
79	子不相形不禱疾...	권6 「예악편」 6-9-10	
80	子曰君子不受虛譽...	권6 「예악편」 6-10-11	
81	或問長生神仙之道...	권6 「예악편」 6-10-7-11	
82	仲長子光曰在險而運奇...	권6 「예악편」 7-10-11	
83	子之叔弟續字無功...	권6 「예악편」 8-4-8	
84	吳季札曰小雅其周之衰乎爾...	권7 「述史篇」 1-10-1-6	
85	叔恬曰敢問元經書陳亡而具五國何也..	권7 「술사편」 2-9-3-10	
86	內史薛公謂子曰吾文章可謂淫溺矣...	권7 「술사편」 5-2-3	
87	賈瓊問正家之道...	권7 「술사편」 5-9	
88	賈瓊請絕人事...	권7 「술사편」 6-5-7	
89	子曰賈誼天孝文崩則漢祚可見矣.	권7 「술사편」 6-7-8	文中子曰
90	子曰我未見謙而有怨...	권7 「술사편」 6-9-10	
91	子曰婦人預事而漢道危乎...	권7 「술사편」 8-1-4	
92	襄嘉有婚會薛方士預焉...	권8 「魏相篇」 2-4-6	
93	子居家不暫捨周禮...	권8 「위상편」 3-10-3-2	
94	張玄素問禮...	권8 「위상편」 3-5-7	
95	魏徵問君子之辨...	권8 「위상편」 3-9-4-2	
96	子曰聞謗而怒者讒之由也...	권8 「위상편」 4-2-4	文中子曰
97	子謂北山黃公善醫...	권8 「위상편」 4-7-8	
98	房玄齡問正主庇民之道...	권8 「위상편」 4-8-11	
99	子曰早婚少娉教人以偷...	권8 「위상편」 4-8-10	
100	子曰吾不廣求故得...	권8 「위상편」 5-9-10	
101	子曰多言不可與遠謀...	권8 「위상편」 6-5-6	
102	賈瓊曰知善而不行...	권8 「위상편」 6-6-8	
103	子曰君子先擇而後交...	권8 「위상편」 7-3-5	
104	子曰君子不責人所不及...	권8 「위상편」 7-5-6	
105	子曰火炎上而受制於水...	권8 「위상편」 7-6-7	
106	子曰命之立也其稱人事乎...	권9 「立命篇」 1-3-1-7	
107	董常歎曰善乎顏子之心也...	권9 「입명편」 2-1-7	
108	門人有問姚義孔庭之法...	권9 「입명편」 2-1-3-8	
109	子曰識寡於亮...	권9 「입명편」 3-8-9	

110	子曰治亂運也有乘之者有革之者...	권9 「입명편」 3-10-3-4	
111	賈瓊曰淳灘朴散其可歸乎...	권9 「입명편」 4-4-10	
112	或問陶元亮...	권9 「입명편」 5-7-9	
113	子曰和大怨者必有餘怨...	권9 「입명편」 5-9-11	
114	子曰氣爲上形爲下...	권9 「입명편」 5-11-5-1	
115	薛收曰敢問三才之蘊..	권9 「입명편」 6-5-9	
116	子曰棄德背義...	권9 「입명편」 6-10-11	
117	子曰中國失道四夷知之...	권10 「關朗篇」 1-7-6	
118	薛收問曰今之民胡無詩...	권10 「관랑편」 1-7-9	
119	姚義困於婁房玄齡曰...	권10 「관랑편」 1-9-1-2	
120	魏徵問議事以制何如...	권10 「관랑편」 1-8-11	
121	子曰罪莫大於好進...	권10 「관랑편」 2-6-7	
122	子曰天子之子合冠而議封...	권10 「관랑편」 2-8-9	
123	薛收問政於仲長子光...	권10 「관랑편」 2-9-11	
124	子曰人不里居地不井受...	권10 「관랑편」 2-1-3	
125	子曰委任不一亂之媒也...	권10 「관랑편」 2-5-8	
126	子曰四民不分五等不建...	권10 「관랑편」 3-5-7	文中子曰
127	子曰仲尼之述廣大悉備...	권10 「관랑편」 3-9-3-1	文中子曰

108) 『中說』은 王通(著), 阮逸(注), 『文中子中說注』(楊家路 주편, 『隋唐子書十種』上, 臺北: 世界書局, 1981 所收)를 이용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1) 기본 자료

金昌協·魚有鳳, 『五子粹言』.

王通, 『中說』.

金昌協, 『農巖集』.

魚有鳳, 『杞園集』.

2) 부가 자료

權璉夏, 『頤齋集』.

紀昀, 『四庫全書簡明目錄』.

紀昀, 『四庫全書總目』.

金邁淳, 『臺山集』.

金春澤, 『北軒集』.

黎靖德 編, 『朱子語類』.

朴世堂, 『西溪集』.

班固, 『漢書』.

司馬遷, 『史記』.

石介, 『石徂徠集』.

成海應, 『研經齋全集』.

宋時烈, 『宋子大全』.

安錫徹, 『雪橋集』.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吳光運, 『藥山漫稿』.

吳熙常, 『老洲集』.

王守仁, 『陽明全集』.

柳希春, 『眉巖集』.

李翱, 『李文公集』.

李令翊, 『信齋集』.

李源祚, 『凝窩集』.

李珥, 『栗谷全書』.

李廷龜, 『月沙集』.
 李廷龜, 『月沙集』.
 李種徽, 『修山集』.
 李顯益, 『正菴集』.
 李喜朝, 『芝村集』.
 錢謙益, 『有學集』.
 鄭道傳, 『三峯集』.
 正祖, 『弘齋全書』.
 程顥·程頤, 『河南程氏遺書』.
 趙璣, 『荷棲集』.
 趙憲, 『重峯集』.
 趙顯命, 『歸鹿集』.
 朱彝尊, 『經義考』.
 朱熹, 『朱子大全』.
 朱熹·呂祖謙 編, 『近思錄』.
 皮日休, 『皮子文藪』.
 許愈, 『厚山集』.
 黃德吉, 『下廬集』.

2. 논저

1) 저서

문석윤, 2006, 『호락논쟁 : 형성과 전개』, 동과서.
 楊永安, 1992, 『王通研究』, 香港大學中文系出版.
 王炳照·閻國華 主編, 1994, 『中國教育思想通史』 제2권, 湖南教育出版社.
 유봉학, 1995,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劉澤華 主編, 1996, 『中國政治思想史』 隋唐宋元明清卷, 浙江人民出版社.
 이경구, 2007,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이승수, 1998, 『삼연 김창흡 연구』, 이화문화출판사.
 정 민, 1989,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程方平, 1991, 『隋唐五代的儒學』 雲南教育出版社.
 諸橋轍次, 安岡正篤, 『朱子學入門』 1974 明德出版社.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 논문

- 강문식, 2013, 「金昌協의 朱子書 연구와 『朱子大全筭疑問目』」, 『한국사연구』 160.
- 김현주, 2015, 「중국 근대 제자학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4.
- 김 호, 2008, 「농암 김창협 사상의 역사적 이해」, 『기전문화연구』 34.
- 류준필 · 이영호, 2008, 「농암 김창협의 논어학과 그 경학사적 위상」, 『한문학보』 19.
- 송혁기, 2015, 「조선의 주자학과 『주자대전차의집보』」, 『동아한학연구』 10.
- 이규필, 2011, 「『주자대전』 주석서와 『주자대전차의문목표보』」, 『대동한문학』 34.
- 이영호, 2014, 「조선의 주자문집 주석서와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88.
- 이향준, 2012,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율곡사상연구』 25.
- 조남호, 2009, 「왕통 사상의 철학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51.
- 하주형, 2011, 「수말 유학자 왕통의 사상과 호한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문집』 35.

Abstract

Sui Confucian scholar Wang Tong[王通] in view of Korean
Neo-Confucian scholar Kim Changhyeob[金昌協]'s
Ojasueon[五子粹言]

Noh, Kwan Bum *

Kim Changhyeob is the problematic figur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Neo-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Korea. He was a Zhuzi scholar in the Yulgok[栗谷] school and now is regarded as the founding figure of Seoul School namely Nakhak[洛學] in the process of the great divergence of Yulgok school. Nakhak is renowned for its being the philosophical root of the idea of Bukhak[北學], for scholars in Nakhak school had tendency to be liberal and eclectic in their Neo-Confuciansim. It may be possible that the Zhuzi learning in this school could be thought to be changed to the Silhak[實學] in the late Joseon Korea. Nevertheless, Nakhak was within the tradition of Korean Zhuzi learning and Kim Changhyeob in this school was a Zhuzi scholar in search of the extensive understanding of the Zhuzi text.

This article tries to approach the actual learning of Kim Changhyeob, reviewing his compilation titled Ojasueon[五子粹言] which was the anthology of five Chinese Confucian scholars, for example, Sunzi[荀子], Dong Zhongshu[董仲舒], Yang Xiong[揚雄], Wang Tong[王通], and Han Yu[韓愈]. They were main Confucian scholars before the emergency of Chinese Neo-Confuciansim in the Song dynasty, and his much interest in them means he had tendency toward extensive Zhuzi learning for Chinese Confucian tradition. Sui Confucian scholar Wang Tong among the above five was noted for his political belief in Wangdao[王道] politics with Han dynasty as its actual model, being criticized by Chuizi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at historical model of Han dynasty was inferior to that of classical periods named Sandai[三代]. In Ojasueon, Kim Changhyeob defined Wang Tong as a Confucian scholar in the criterion of the Zhuzi learning, still keeping his belief in the Han dynasty as the ideal model for Wangdao politics in mind.

Key words : Kim Changhyeob[金昌協], Eo Yubong[魚有鳳], Ojasueon[五子粹言], Wang Tong[王通], Zhuzi learning